기자들의 눈

ijournalist.co.kr

2024년 7월 2일 (화)

일간 인터넷판 제194호 TEL 032-433-8081

인천시 동구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 책임론 논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동구 의원들 불만 증폭
국힘 의원까지 반발…비민주적인 절차 행위

제9대 인천 동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반하는 일방통행의 길을 걸어 파행 책임소재를 묻는 기자회견이 2일 오전 10시 개최됐다.

실제 현 상황을 개탄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 원구성 파행은 '점입가경'이다. 문제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만 비상식이 됐다고 한다.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에도 다시 의장이 되고자 나섰다는 것인데 짬짬이 원구성이 부딪치고 있다. 이 과정 소수 야당하고는 일체 소통이 없었다고 한다.

지역 풀뿌리 의회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의원들이 뿔났다. 분노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이 나서 풀뿌리 정도정치(正道政治)가 유실됐다고 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재실·장수진 의원을 비롯하여 정의당 김종호 의원은 국민의힘은 야당을 배제한 일방적이고도 폭거적인 원구성을 시도했다고 날을 세우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평한 후반기 원구성 논의를 위해 동구 의원 간담회를 조속히 개최하라고 주장했다. 동구 의원들의 분포를 보면 국힘 5명, 민주당 2명, 정의당 1명으로 총의원 수는 8명이다.

전반기 국민의힘 유옥분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했기에 후반기 다시 의장을 이어가려는 추진은 내부 반발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 동구 주민들도 유 의원 의장직을 반대해 논란이 크다.

실제 의회 안건처리에 있어 협조보다 대결 구도가 되면 사사건건 부딪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회 문제는 외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원구성 문제보다 사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 쟁투로 비추어지고 있다. 의회 파행은 다수당 국힘 자충수로 지적되어 험난한 여정이 전망되고 있다.

원구성은 순리에 입각하여 구성되는 것이 염치라고 한다. 완장만 차면 욕심이 끝없이 발동해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뒷배가 누구인지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장수진 민주당 의원은 야당과 협치할 것인지 후반기 내내 충돌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상식이 없는 국힘 의원들 의도가 참담하다고 밝혔다.

최훈 국힘 의원 또한 안타깝다. 의회가 일방통행이라 참담하다. 또 외부에서도 압력이 들어와 답답하다. 이전까지 원구성은 비상식이 통했지만,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옥분 의장은 전화를 받지 않아 본지는 문자를 남겨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의견을 듣고 싶다고 알렸지만, 전화는 계속 받지 않았다. /김양훈 위원, 문미순 기자

인천 지역지 유튜브 방송 외면한 행사 언제까지

지역 언론사가 운영한 유튜브 지역민 구독자들 찬밥신세

인천 기반을 두고 1만 명 이상 구독자 등을 확보해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지역 언론사 매체가 결이 다른 인천시 유튜브 정책에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언론 생태계도 언론사 지면 시대에서 커뮤니티 온라인 방송시대로 전환하며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지 등은 많은 투자로 홈페이지에 별도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한 지역 언론사는 인천지역에서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피땀이 서린 활동에 찬물을 붓는 행위는 외부 대형 유튜브 상대로 예산을 써 곱지가 않다.

인천시는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는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약 1만 명 팬이 행사장 찾아 성황리 행사를 종료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1회성 행사가 맞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소외된 일부 지역 소규모 매체들은 자랑질 그만하라며 뿔난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 순수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왔을까 정확한 수치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인천광역시와 구글이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크리에이티브컬쳐클럽이 주관한 홍보는 부익부 빈익빈 홍보로 유튜브 중요성은 알면서도 지역 매체는 왜 외면하냐는 것이다.

그간 인천의 주요행사와 시정 활동과 관련해 지역 매체의 유튜브 방송은 협조 차원으로 홍보해온 만큼 상대적 박탈감에 한숨을 쉬고 있다. 노력해도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는 중론이다.

인천광역시의회도 철저한 시정의 논리로 접근해 지역 언론매체에 대해 육성하는 노력을 시 정부에 건의하고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커 전사적 자세로 나서라고 한다.

인천시 공중파 방송 홍보예산은 지면의 예산보다 2배 정도로 많은 방송 예산 수십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 정작 지역의 매체는 불 경구식으로 혈세를 집행하고 있어 비난일색이다. 케이블 업체도 지원하고 있는데 방송사로서 지위도 살펴야 한다, 시는 예산을 쓰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써 허비된 내용은 여론이 좋지 않다. 눈요기로 예산을 너무 쓴다는 것이다.

인천시민의 혈세를 먹고 놀자 등 소비형태다. 지역의 언론들이 들어갈 틈도 없을뿐더러 배려가 없는 시정책에 항상 쪼들리는 언론 생태계는 지반이 빈약해 발전이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최 인천시가 이번 행사에서 5억 집행과 구글이 29억을 투입된 행사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지역 매체에 대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양훈 위원, 문미순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나라장터 엑스포 2024' 표창 수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동반성장 공공구매 상담회에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로 7월 1일 조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부대 행사인 '동반성장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국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2개 중소기업과 1:1 상담을 통해 혁신제품, 성능인증제품 등의 제품 정보공유 및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했다.

대표 수상한 업무담당자 김대영 대리는 "공사가 협력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엑스포는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 디딤돌"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을 통해 공사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을 위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추진된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문미순 기자

차세대 글로벌 경제 리더들 한자리 모습 [사진 제공=인천시]

차세대 글로벌경제 리더들 모였다!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계기…26개국 117명 참가

인천광역시는 7월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5박 6일간 송도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2024 제22기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이 개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글로벌 경제리더를 육성하고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목표로 각국의 차세대 재외동포(1.5~4세대)를 국내에 초청하는 행사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가 2003년부터 매해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상대적으로 모국과 접점이 부족한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인천을 알리는 한편, 앞으로 글로벌 인적 자산인 차세대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월드옥타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다.

이번 교육에는 해외 26개국 89명의 재외동포 청년과 국내 28명의 대학(원)생 등 총 117명의 국내·외 차세대 경제인이 인천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명사 초청 강의를 비롯해 팀별 토의 및 발표, 국내 스타트업 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 인천 역사·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5일 차인 7월 5일에는 연수구 송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 스마트시티운영센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견학하고 중구에서 역사·문화 해설사와 함께 개항장 일대를 둘러보며, 인천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인천의 발전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교육 첫날 환영 만찬에 참석한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이자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는 인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라며 "국내·외 차세대 경제인 간의 심도있는 토론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많은 성과를 얻어가시길 바란다"라고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문미순 기자